상반된 여야 원내대표 경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 진용 개편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당내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후보단일화 성사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 1~2개월 연기론 부상

소장파·중진들 공감… 정의화 등 후보들 반대

당내 갈등과 쇄신 움직임 등을 감안, 오는 21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한두 달 미루자는 연기론이 당내 소장파는 물론 중진 의원들 일각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3일 "최근의 당내 사정 등을 감안해 개혁입법을 기존 원내지도부가 마무리 짓고, 6~7월에 경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당 쇄신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원내대표 합의 추대안을 둘러싸고 당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격앙된 상태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푸는 시간이 필요하며, 어차피 6월 국회가 작년부터 이월된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논거가 있다"면서 "특위가 공식 출범한 만큼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논의를 공식기구에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 연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한 그룹이라도, 비중 있는 그룹이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담담한 마음으로 충분히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이라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화, 안상수, 황우여 의원 등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은 "원칙대로, 정해진 스케줄대로 경선을 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론에 반발했다. 또 안 의원이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후보들간 경쟁이 본격화 됐다.

민주, 후보 단일화 분위기 고조

내일 경선… 이강래·김부겸·박지원 3파전

비주류의 이종걸 의원이 이날 이강래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중도하차하면서 경선 구도는 주류 측의 김부겸, 비주류의 이강래, 탈(脫)계파를 표방한 박지원 의원 간 3파전으로 정리됐다.

이에 이강래 의원 측은 막판 단일화로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며 반색했다. 단일화를 주선했던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17명)와 친(親)정동영계 중심의 국민모임(10명) 가운데 두 모임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20명 이상의 표를 확보한데다 호남표 상당수까지 더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나머지 두 후보 측은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고 이강래, 이종걸 두 분의 지지기반이 범 비주류라는 틀 내에서 겹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 측은 "단일화 이후 이탈표 일부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가능하겠지만 불투명한 단일화는 거부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잘라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정권 실세도 조사하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현 정권의 실세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뇌물이냐" "100만불의 일부냐"

■ '40만불' 盧 영장청구 여부 주목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건네진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계속 바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해명과 새롭게 드러난 '40만 달러' 수수 사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아들·딸 및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말 맞추기로 인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자동적으로 무게가 실리게 된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3억원을 본인이 받아썼다고 진술했다가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3억원이 발견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이미 금이 간 상태다.

또 500만 달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장남 건호씨와 상관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건호씨가 이 돈으로 사업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권 여사가 채무변제에 썼다"는 해명만 있었지만 이것도 점차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박게이트' 추부길 檢, 징역 3년 구형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추 전 비서관은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승영 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강운태 민주당 복당 가시화

정세균 대표 "복당 신청하면 적극 검토"

무소속 강운태(광주 남·사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탈당 후 1년이 지나면 당무위 의결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당원자격 심사만 받으면 된다"며 "강운태 의원도 당원 자격 심사에서 별로 걸릴 것이 없는 데다 광주 여론도 긍정적이어서 복당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세균 대표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당헌 당규상 1년의 시한이 경과됐다"며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합당한 논의 절차를 걸쳐 복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운태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조만간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당내 통합과 정권 창출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복당 후 지역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은 상식"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당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강 의원은 물론 현재 무소속인 호남지역 정치인들의 복당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거론되는 복당 대상자는 작년 4·9 총선 때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이석형 함평 군수 등이다.

민주당의 복당 추진 배경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정동영 의원을 견제하고 당내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복당이 추진되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탈당 후 1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에서 정동영 의원도 복당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또, 무소속 인사들의 복당을 통해 정동영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그동안 복당이 미뤄져 왔던 인사들을 대거 당내에 복귀시키면서 주류와 비주류로 갈등을 빚어왔던 당내 화합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13일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건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집회·시위를 해산할 때도 보도 등을 차단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시 신체적인 약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영상촬영 등 채증은 집회·시위가 공공질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공무원 발언 박시장 사과해야"

○…광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13일 "'비실비실 놀고먹는 공무원' 발언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의 '놀고먹는 공무원 발언'은 3천여 시 공무원을 일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으로 매도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노조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퇴출돼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지만, 박시장의 발언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경 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교재 1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50% D/C 교재 15% D/C
주저하지말고 1년 수강료 96만 도전하면 합격의 지름길!
합격배출 1위 교수진
경찰학 오 탄 •신 경향 경찰학 개론 직강 •남부 경찰학원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수사 차주윤 •강의경력 22년 •광주 순천 메인 전임 •광주 메가 경찰 학원 전임
영어 이방희 •경찰 영어 70% 합격좌우 •꼭꼭 짝어 쉽게 강의 •강의경력 15년
형법 허문표 •FIRST최강 형법 직강 •노량진 한국경찰 전임 •광주 메가 학원 전임
형소법 김현중 •시시 1처 3회 합격 •신림동 법원 경찰수강대상 10년 강의 •형소법출제경향이 확 바뀌고있다.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226-505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들,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7·9級 공무원 全직렬
30 40 늦깍이 주부반모집실시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록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할 후 6년간 소방인력 8395명을 충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 원 {국가직 9급 2320명, 7급 800여명 공채 지방직 7·9급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6일 시행 서울7·9급 행정7월19일,기술직렬 8월17일예정
개 강 5월 15일(주·야 종합반 모집) (현재상담접수중)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사법, 민사법, 헌법, 경제학 교정학, 복지학, 소방학·법, 공중보건학, 상식, 기타
= 주간반 2개월, 야간반 3개월 완성 =
=최선을 다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부대시설◦ •정독실300여석! •구내식당 •인터넷정보실! •지하주차장! •맞춤식 학원풍 최신시설! •매월말 모의고사 실시!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증앙초교 후문앞) ☎222-4560

최상의 스크린 골프클럽이 당신을 "VVIP"로 모십니다!!
서광주스크린골프클럽의 블루오션
■ 광주권 최대매장(룸 8실)
■ 탁월한 접근성(제2순환도로 인접)
■ 전용주차장(30~40대) 완비
■ 골프백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 홀인원·알바트로스 기록시18홀 무료라운딩 쿠폰 증정
■ 이글 기록시 9홀 무료라운딩 쿠폰 증정
■ 멤버쉽카드 소지자 마일리지 적립
■ 여성골퍼 오전 입장시 특별우대 (1만원/18홀)
■ 20회 이용권 소지자 락커 무료제공 (70명 선착순)
SGJ GOLF SCREEN
서광주스크린골프클럽
T. 062) 654-0742(공칠사이)
김용율 프로 010-3096-0050
오시는 길